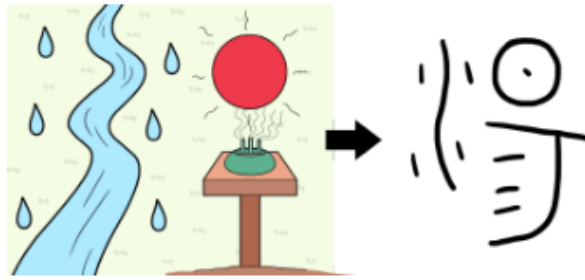


3(2)
-
441

회의문자 ①



湯

끓을 탕:

湯자는 '끓이다'나 '끓인 물', '온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湯자는 水(물 수)자와 湯(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湯자는 햇별이 제단을 내리찍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별'이라는 뜻이 있다. 湯자는 이렇게 햇별이 내리찍는 모습과 水자를 결합해 물이 끓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湯

금문

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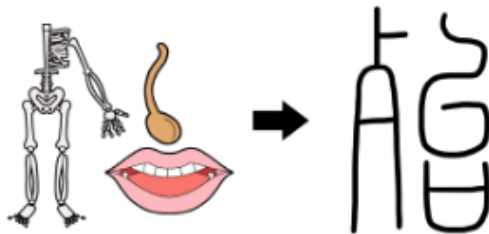
소전

湯

해서

3(2)
-
442

회의문자 ①



殆

거의 태

殆자는 '거의'나 '위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殆자는 歹(삿 알)자와 殆(별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歹자는 부서진 뿔조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殆자는 수저와 입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殆(미치다 태)자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 殆자는 '죽음'을 뜻하는 歹자와 殆자를 결합해 '거의 죽음에 이르다' 즉 '위태롭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다만 지금의 殆자는 '거의'나 '장차'라는 뜻만 남아 있다.

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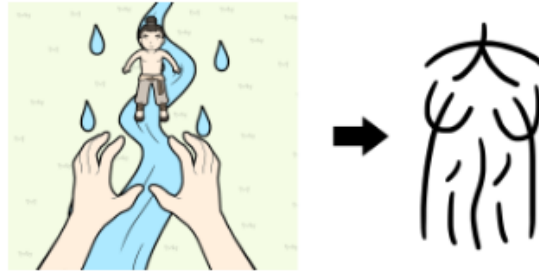
소전

殆

해서

3(2)
-
443

회의문자 ①



泰

클 태

泰자는 '크다', '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泰자는 水(물 수)자와 大(큰 대)자,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泰자는 본래 "(물에)손을 씻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泰자의 소전을 보면 사람(大)이 흐르는 물(水)에 양손(升)을 뻗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물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泰자가 '크다'나 '편안하다', '안정되다'와 같은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

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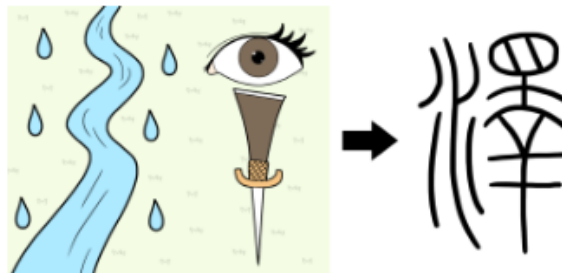
소전

泰

해서

3(2)
-
444

형성문자 ①



澤

못 택

澤자는 '못'이나 '택지', '늪'을 뜻하는 글자이다. 澤자는 水(물 수)자와 睪(엿볼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睪자는 '엿보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역→택'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못'이나 '늪'은 오목한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을 말한다. 항상 물에 젖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澤자는 '촉촉하다'나 '습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또 습지에서는 농사가 잘되기 때문에 '은혜'나 '은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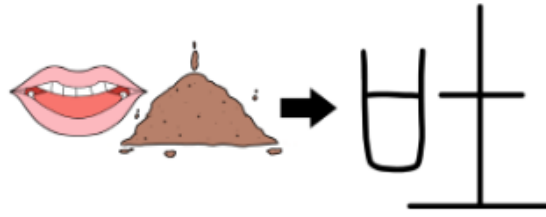
소전

澤

해서

3(2)
-
445

회의문자①



토

토할
토(:)

토자는 '토하다'나 '게우다', '털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토자는 口(입 구)자와 土(흙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土자는 흙덩어리를 그린 것으로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토한다는 것은 몸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토자에 쓰인 土자는 발음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땅에 게워낸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토자는 단순히 음식을 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모두 뱉어낸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토

소전

토

해서

3(2)
-
446

兔

토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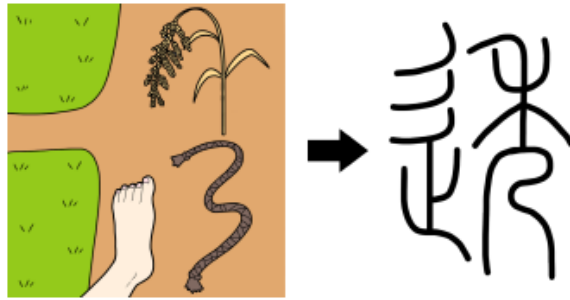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본래(本來) 긴 귀와 짧은 꼬리를 가진 토끼의 모양을 본떠 그것이 지금의 자형(字形)으로 변했음.

토끼 토

3(2)
-
447

회의문자 ①



透

사무칠
투

透자는 '투과하다'나 '꿰뚫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透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秀(빼어날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秀자는 벼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透자는 이렇게 벼가 솟아오른 모습을 그린 秀자를 응용해 높이 점프하듯이 길을 가로질러간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透자는 단순히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꿰뚫거나 투과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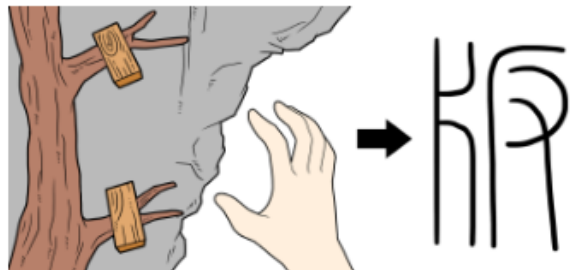
소전

透

해서

3(2)
-
448

형성문자 ①



版

판목 판

版자는 '널빤지'나 '판목', '편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版자는 片(조각 편)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반 → 판'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版자는 평평하게 가공한 나뭇조각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고대에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간(竹簡)에 편지를 쓰거나 목판으로 책을 인쇄했기 때문에 版자는 '편지'나 '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널빤지를 뜻하는 글자로는 간혹 木(나무 목)자가 들어간 板(널빤지 판)자가 쓰이기도 한다.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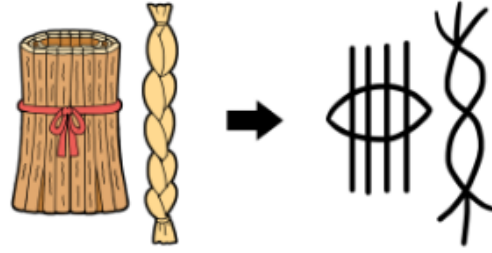
소전

版

해서

3(2)
-
449

회의문자①



編

엮을 편

編자는 '엮다'나 '짓다', '편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編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扁(넓적할 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扁자는 널빤지에 글이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걸어 놓던 편액(扁額)을 표현한 것으로 '넓적하다'나 '두루'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編자를

보면 본래는 冊(책 책)자와 系자가 결합한 𠄎 모습이었다. 冊자는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서의 이렇게 冊자에 系자를 결합해 여러 개의 죽간을 실로 '엮는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소전에서 冊자가 扁자로 바뀐 것은 발음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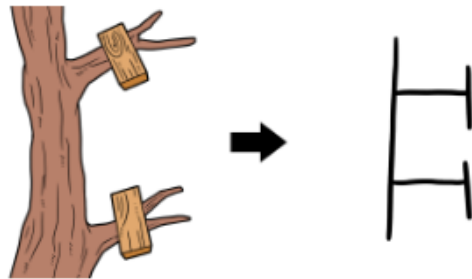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3(2)
-
450



片

조각
편(:)

片자는 '조각'이나 '한쪽',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片자는 나무의 오른쪽 면을 그린 것이다. 片자의 갑골문을 보면 나무기둥 우측으로 갈라진 나뭇가지가 그려져 있었다. 片자는 여기에 나무판을 덧댄 모습을 그린 것으로 '조각'이나 '한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片자는 나무를 잘라 재단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片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가공된 나무나 작게 조각이 난 물건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片자가 반대로 그려진 예도 있다. 바로 𠄎(나뭇조각 장)자이다. 𠄎자 역시 片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지만 片자와는 달리 '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모양은 비슷해도 쓰임이나 뜻이 다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